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내일 투자설명회 개최

NH투자증권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마트 동백점 건물 내 주네브 웨딩홀에서 분당, 용인 지역(미금역·수지 WM센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세미나는 1부, 2부, 3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조연주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책임연구원이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성장의 역사'를 주제로, 2부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이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양극화 투자전략'을 주제로, 3부는 유정희 세무사가 '똑똑한 다주택자, 알뜰한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채윤정 기자



키움증권

20일 투자전략 세미나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강달러로 보는 원자재 투자전략 세미나'를 키움증권 2층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선물거래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달러와 상품의 상관관계로 보는 매매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달러 강세에 따라 원자재 및 지수 변동성이 높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키움증권은 달러와 상품의 상관관계로 변곡점을 미리 파악하는 등 매매 포인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진 원자재·해외투자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는다. 사전 접수자 100명에게만 참석 기회가 제공되며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영웅문S 글로벌을 통해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하이투자증권

100억 규모 ELS 모집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1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818호는 코스피(KOSPI)200 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3.5%(연 4.5%)의 수익을 지급한다. /손범기 기자

# 전국 바캉스 분양 8만2120가구 '붐물'

(6~8월)

정부 규제에 상반기 물량 몰려 작년 같은기간 보다 55% 많아 "내집마련 청약전략 세워볼 만"

올 여름 때이던 아파트 분양 성수가 펼쳐진다. 통상 장마와 휴가철이 겹치는 6~8월에는 분양시장이 비수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 규제 여파로 분양을 미뤘던 상반기 분양 예정 단지가 한꺼번에 몰려 유례없는 분양시장 분위기를 연출할 전망이다. 물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시장 차별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보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분양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 그동안 미뤄졌던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6~8월에만 전국 신규 공급 아파트 물량은 8만2120가구(임대제외)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996가구보다 54.95% 많다.

월별로는 ▲6월 4만9276가구 ▲7월 2만815가구 ▲8월 1만2029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2435가구 ▲부산 1만5155가구 ▲서울 1만3277가구 ▲대



지난 14일 문을 연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대우건설

구 8347가구 ▲인천 6382가구 ▲대전 3692가구 ▲광주 3136가구 ▲충남 1733가구 ▲전남 1388가구 ▲강원 1130가구 ▲경남 842가구 ▲세종 817가구 ▲경북 659가구 ▲충북 489가구 ▲전북 188가구 ▲울산 40가구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 규제 여파로 상반기 예정 물량이 대거 연기돼 여름철로 공급이 집중된 것"이라며 "연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은 미리부터 청약전략을 세워볼 만하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 대림산업은 이달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e편한세상 두류역' 59~84㎡, 902가구 가운데 676가구를

(6~8월 전국 주요 분양단지)

사업명	위치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분양시기	건설사
e편한세상 두류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일원	59~84	902 (676)	6월	대림산업
래미안 라클래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71~84	679 (112)	6월	삼성물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일원	39~109	1556 (857)	6월	제일건설
호반써밋 고덕국제신도시	경기도 평택고덕 국제신도시 A-22블록	84~112	658	7월	호반산업
송도 더샵 프라이뷰(가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F20-1, F25-1블록	미정	826	8월	포스코건설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각사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대구지하철 내당역과 두류역을 걸어서 10분 내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대구 동서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도 인접해 있다. 또 대구 최대규모의 두류공원이 가깝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라클래시' 679가구 가운데 71~84㎡, 11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우며 서울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분당선 강남구청역도 이용할 수 있다. 수요자들의 관심 단지지만 시장에서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일건설은 이달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서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39~109㎡, 1556가구 가운데 85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개통을 앞둔 지하철 2호선 전남대역(가칭)이 가까우며 동광주IC를 통한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도로 등 이용이 수월하다. 또한 이마트(동광주점), 메가박스(전대점) 등 편의 및 문화시설이 가깝다.

호반산업은 오는 7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국제신도시 A-22블록에 '호반써밋 고덕국제신도시' 84~112㎡, 658가구를 분양하고포스코건설은 8월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F20-1, F25-1블록에서 '송도더샵프라이뷰(가칭)' 82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 미래에셋운용, 獨 오피스 매각으로 1600억 차익

프랑크푸르트 '타우누스안겔라게8' 인수 2년만에... 매각액 52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의 프라이밍 오피스빌딩인 '타우누스안겔라게8(Taunusanlage8)' 매각을 위한 계약을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8월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해 2억8000만 유로(약 3600억원)에 해당 건물을 인수했다. 매각금액은 4억 유로(약 5200억원)로 인수 2년 만에 1600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게 됐다.

또 투자기간 동안 7% 중반의 배당이 이뤄져 매각이 완료될 경우 연 25%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의 프라이밍 오피스빌딩인 '타우누스안겔라게8(Taunusanlage8)' 매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만기가 오는 2022년 10월이지만 자본력이 검증된 매수인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

해 조기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핵심업무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매입 당시 건물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가 공실이었던 이유로 독일 현지 투자자를 중심으로 경쟁 입찰이 진행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고 수준의 입찰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독일 필른시청사 투자 건을 통해 독일 시장에서 자금력과 거래종결 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대 대체투자 운용사인 미래에셋은 푸동 핵심지구에 위치한 중국 상해 미래에셋타워를 시작으로 글로벌 탑 호텔 브랜드인 포시즌스(시드니, 한국)와 페오몬트 오키드(하와이, 샌프란시스코)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또 미

래에셋센터원빌딩은 명동, 종로, 을지로를 잇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 자산에 있어 우량 오피스빌딩에서부터 국내외 호텔, 물류센터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 부문 대표는 "이번 매각은 일시적으로 공실이 높은 부동산이라도 우수한 입지의 우량 물건이라면 향후 임대율과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며 "앞으로도 해외 우량 부동산을 적극 발굴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1분기 증권사 순익 1.5조 '사상최대'

총 56곳 전분기 비 184% 증가

올해 1분기 증권사 순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IB, 자산관리 등 수익구조가 다양하게 분포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이 같이 증권사들의 수익원 변화가 지속되면서 올 2분기에도 주식시장이 부진에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다. IB와 트레이딩이 꾸준히 성장하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평가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56곳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잠정)이 1조4602억원

으로 이전 분기보다 183.8%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1분기(1조4507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수수료 수익이 2조242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늘었는데 투자은행(IB)부문(8.0%)과 자산관리 부문(10.0%)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타 자산 손익은 전분기 1974억원 손실에서 1조4784억원 이익으로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이 중 펀드 관련 이익은 70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6488억원)이나 외환(1281억원) 관련 부문도 눈에 띄는 이익을 냈다.

(국내 증권사 1분기 수수료이익률 증가 비중)

구분	'18.1Q	'18.2Q	'18.3Q	'18.4Q (A)	'19.1Q(B)	증감(B-A)
수수료	55.0%	48.2%	42.2%	39.6%	39.7%	0.1%
IB부문수수료	21.9%	28.2%	28.6%	31.7%	34.0%	2.3%
자산관리부문수수료	9.7%	10.2%	11.5%	10.5%	11.4%	1.0%
기타수수료	13.4%	13.4%	17.7%	18.2%	14.9%	△3.3%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IB와 자산관리 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증권사 수익구조가 다각화되고 있다"며 "금리 하락 추세, 주가지수 상승에 따라 채권주식 등 운용수익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올 2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한국금융투자·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의 연결 순이익이 6392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분기 대비 26.7% 감소하는 것이지만 컨센서스 대비 15.4% 웃도는 수치다.

/김유진 기자 ujin6326@